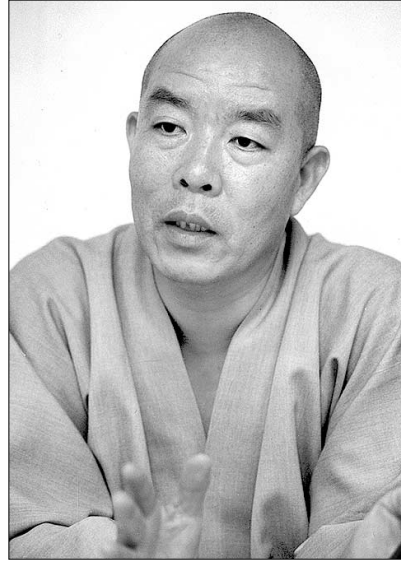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 펴낸 보광 스님

“선학연구의 기본 텍스트이며,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 95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총 10권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9권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30여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7일 <역주 정법안장 강의> 제 1권을 펴낸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사진). <역주 정법안장 강의> 제 1권에는 총 95책에 이르는 <정법안장>의 1~10책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경(道鏡, 1200~1253)의 대표적 저술입니다. 도경 스님이 13세기 송나라 시대 중국 영파(明주)의 청동산 천통사 여정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보고 느낀점 그리고 선의 종지를 거략하기 위해 곳곳에서 살법한 내용을 모은 것이지요.” 보광 스님은 “정법안장”에는 중국 송나라



“송나라 시대 선종 남녀차별 없었다”

앞으로 30년간 총 95책 10권으로 정리

때 선종의 모든 의식과 모습 즉 의식과 수행방법, 청규, 습의, 가람배치 등을 적고 있다”며 “선종이 왜 중요한지부터 선방에서 세수는 어떻게 하고, 선방에 대중공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청규들이 자세히 다”고 설명했다.



역주 정법안장 강의 보광 스님 | 1권 2만5000원

었다가 <정법안장>에 관한 연구서적이 많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역주 정법안장 강의>는 귀국하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1993년 3월 1학기부터 석박사 과정 수업교재로 활용하면서 꾸준히 연구해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님은 수강신청을 한 대학원 학생들이 각 부

분을 맡아서 일어로 읽고 해석하면서 주석을 찾아와 발표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다음 발표한 내용을 서로 검토하고 주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한 후 함께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이해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토론했다고 한다. 방학때에는 합숙하며 집중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32권까지 주해를 달아 놓은 상태다.

스님은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역해를 위해 문헌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한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 점이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말 표현의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개화기 대강백 한영 스님

한시로 만나다

문장의 귀신이 되길 바라지 말고 도출된 공활에 나가길 도모해야지. 빛은 오직 암의 정수리까지 통하여 끝이 없으니 공도한 공일세. 은혜든 원한이든 결국 어디에 붙겠는가 호랑이와 악어도 양처럼 길들여졌지. 오색의 경계에서 수고로움을 잊었으니 하늘밖에 뜬 달이 시원하구나.

이 시는 개화기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고승대적이었던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이 단재 신채호의 49재를 지내는 당대 최고의 한학자였던 산강 변영만에게 준 것이다. 변영만은 한영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한장의 글자를 주심으로 외람되도 격려하여 주심을 입어 실로 의도한 바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글과 글씨가 생동감이 있고도 우아하여 호연한 기운이 천지에 가뭇지름을 보니 노쇠한 몸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놀랐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보내주시는 계승 글 구절의 오근색경(五根色鏡)의 고통을 다 잊어 버리고 하늘밖에 외로이 있는 청량한 달이로다라는 문장에는 무한한 뜻이 담겼고 또 신령을 기쁘게 할 것이므로 영전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면 변영만이 한영 스님의 한시 감화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암 스님의 시는 엄격한 자기수양, 생사초월의 지혜, 호연한 문기가 돋보여 당대 최고의 교양



석전 박한영 한시집 서정주 번역 동국역경원 8000원

인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영 스님은 생전에 한시를 3000수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420수이다. 이 시는 육당 최남선이 한영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에서 1940년 직접 출판한 <석전시초>에 수록돼 있다. <석전시초> 상하권에는 각각 250수와 170수 정도가 있다.

박한영 스님은 일제의 한국불교 장악에 맞서 진진한, 한용운, 오성월등과 함께 민족불교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공헌했으며, 개혁성향의 불교유신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불교강속 속사, 중앙학림 교장,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과 불교조계종 교정을 역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국불교의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

특히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등이 스님을 흠모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청담 스님, 윤희 스님, 신석정, 서정주씨가 제자이다.

김원우 기자



아미타경 진현중 옮김 미토스 9800원

틱낫한 스님 ‘아미타경’ 해설 펴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아미타불...”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 이 여섯 글자 명호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이 육자명호(六字名號)는 바로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의미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無量壽佛)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로도 불리며,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에 살면서 인간의 구제에 진력하는 부처다.

정토종의 소의 경전 <아미타경>에 대한 틱낫한 스님의 최초 해설서가 나왔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에서 다른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토사상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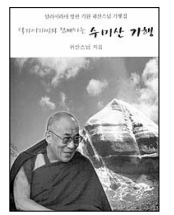
성과 그 역사, 그리고 극락왕생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스님은 다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정토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이미 정토에 있으면서 따로 정토나 천국을 구하며 번민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란 깨어 있는 자제로 한 걸음 내딛고 한 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스님은 현재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세상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의 소망을 환상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의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공동체마를 플랫폼리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새로나온 책

귀산 스님의 북경에서 수미산까지

■ 수미산 기행(대산 스님 지음, 효림) = 서울 평창동 상원암 주지인 귀산 스님이 달라이라마 방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발간한 기행집 <수미산 기행>을 펴냈다.



귀산 스님은 2005년 25박 26일간 수미산을 기행하고 보고 느낀점을 기록했다. 책의 내용은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으로부터 시작해 북경을 거쳐 티베트 라사, 서부 티베트의 시가체, 사가사원, 다르첸, 수미산 바깥 콜라, 안콜와, 구계왕국을 둘러본다. 이어 장무로 가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보고 네팔에서 하루를 지낸 뒤 방콕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 스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투와 사정을 곁들여 기행문의 감흥을 돋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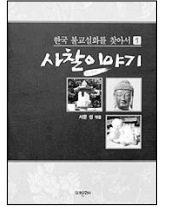
황우석 줄기세포를 둘러싼 진실

■ 닷에 걸린 황우석(교준환 지음, 답게) =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의 내막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경기대 법학과 교준환 교수(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가 진실규명 차원에서 파헤친 긴급보고서. 책에서 교 교수는 이 사건은 새턴을 비롯한 기술패권주의 미국, 로마 교황청이 관계된 적그리스도교 세력, 홍석현 보광그룹 회장과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이 포함된 삼성그룹, 노무현 정부, PD수첩으로 유명한 MBC등이 얽히고 설킨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놓은 닷에 황우석 교수가 걸리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 사찰에 얽힌 연기설화

■ 사찰이야기(서문성 지음, 미래문화사) = 사찰의 연기설화를 발굴 보존 전수하기 위해 저자가 직접 전국 유명 사찰을 방문하여 관련 설화 자료를 수집했다. 대상사를 원색 사진에 담아 사찰의 연혁과 함께 입체적으로 편집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모든 연기설화를 시리즈로 엮은 예정인 저자는 1권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지역의 44개 전통사찰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부록으로는 선종 계보도와 한국선종 계보도가 실려있다. 한편 호남 충정지역은 2권으로 이어서 발간될 예정이다.



yosiamun.com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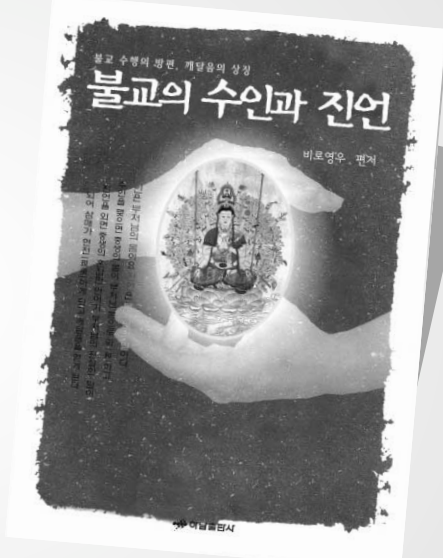
- 그냥 살라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 큰 스님 큰 가르침
- 대산출판사, 정영섭, 1만5000원
- 민족사, 성법스님, 9500원
-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고즈원, 서희동, 1만2800원
- 문예출판사, 윤정광, 1만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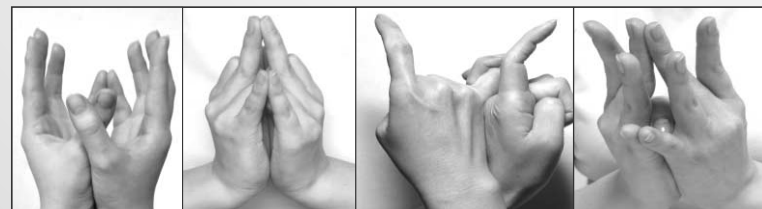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 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h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염우 스님 편저 / 시룩배판 / 382쪽 / 값20,000원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濚瀆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분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르다” (감탄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생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회사 (02)2612-3358